

사설

새만금, 이제 대안을 논할 때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조제 공사 등의 중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새만금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목적이 농지 조성과 수자원 개발인데, 새로 조성될 담수호는 심각한 오염으로 농업용수의 기준인 4급수로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 방조제 토석유실 등에 따른 보강공사에 비용이 소요돼 공공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방조제 공사 완공으로 일개 뚝 수질오염이나 갯벌과 또 등 환경피해에 비하면 집행정지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에 따라 찬반논쟁이 더 거세질 조짐마저 보이지만, 하나의 과정보다 본다면 그리 우려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후의 논의는 갯벌을 살리면서 전복도의 발전 방안을 찾는 대안 모색의 차원으로 전개돼야 한다. 다행히 이미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농림부는 이번 결정이 아쉽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정부와 사법부가 맞서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 정부 측은 오히려 예전의 관행을 확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밀어부쳐서는 곤란하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사업 집행을 강행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번 판결이 새만금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갈등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찰에서 불자다운 휴가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복잡한 일상을 잠시 접어 두고 쉼터로 달려가는 마음은 언제나 즐겁다. 때문에 보다 즐겁고 보람 있는 휴가를 위해 가족회의도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찾기도 한다. 삶의 시간을 잘 보내려는 마음은 단지 휴가에 대한 유혹이 아니다.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휴식도 생산의 일환이란 측면에서 볼 때 휴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불자들이 사찰에서 마련하는 각종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휴가를 보내려 한다는 소식은 언제 들어도 반갑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자신의 삶을 살게 하려는 불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올 여름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불자다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사찰에서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고 템플스테이의 정착에 따라 산문을 열어 놓고 삶에 지친 사람들을 기다리는 산사도 많다. 또 사찰이 운영하는 성보박물관을 찾거나 사찰과 연계된 친환경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것도 좋은 삶의 시간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굳이 사찰을 탐방하지 못할 경우라면 한 권의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국가 경제의 전체 기류가 생활인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그럴수록 건강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바른 휴식도 필요하다. 적은 비용으로 큰 보람을 챙길 수 있는 휴가, 바로 사찰에 답이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복잡한 일상을 잠시 접어 두고 쉼터로 달려가는 마음은 언제나 즐겁다. 때문에 보다 즐겁고 보람 있는 휴가를 위해 가족회의도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찾기도 한다. 삶의 시간을 잘 보내려는 마음은 단지 휴가에 대한 유혹이 아니다.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휴식도 생산의 일환이란 측면에서 볼 때 휴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불자들이 사찰에서 마련하는 각종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휴가를 보내려 한다는 소식은 언제 들어도 반갑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자신의 삶을 살게 하려는 불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올 여름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불자다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사찰에서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고 템플스테이의 정착에 따라 산문을 열어 놓고 삶에 지친 사람들을 기다리는 산사도 많다. 또 사찰이 운영하는 성보박물관을 찾거나 사찰과 연계된 친환경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것도 좋은 삶의 시간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굳이 사찰을 탐방하지 못할 경우라면 한 권의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국가 경제의 전체 기류가 생활인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그럴수록 건강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바른 휴식도 필요하다. 적은 비용으로 큰 보람을 챙길 수 있는 휴가, 바로 사찰에 답이 있다.

“최소 6년간 교육후 구족계”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교구본사별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계획

‘북한산관통로 안된다’ 소신 변함없어

“인사·대정부 문제 長考” 신중성 보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총무원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18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가진 총무원 출입기자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다. 간담회는 2시간10분 동안 진행됐으며, 법장스님은 안경까지 벗고 대화에 나서며 등 시종 일관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이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승가 교육제도, 승려노후복지, 포교 등 종단 중요 사안과 북한산 문제와

종단 자립기반 확보 등의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간간히 총무원장으로서의 고충을 털어놓으면서도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소신도 내비쳤다.

승가교육제도와 관련해 법장스님은 구족계를 받기까지 최소 6년의 교육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4년간 내·외전, 습의, 포교, 외국어 교육과정은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사미계를 받도록 하고, 2년간은 전문대학과 같

은 것 같다”며 중대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나서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밖에서 본 것과 (총무원에) 들어와서 본 것이 많이 다르다”며 “인사문제로 대정부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장고(長考)하고 있다”고도 했다.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의 우회적 표현이다.

“모두가 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이다. 돌아올 기회는 주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말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강조해오던 원용살림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ia.com

문화재청 승격 협조요청

법장스님, 최병렬 대표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4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과 전통사찰보존법의 현실성 있는 개정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대표 취임 인사차 이뤄진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우리 문화재의 70~80%가 불교문화재다. 그런데 1400억원의 문화재 예산 가운데 불교문화재를 위한 예산은 340억원에 불과하다. 차관청으로 승격돼야만 예산이나 인력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법장스님은 또 “전통사찰에서 무엇을 하려면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가기관은 그렇지 않다. 행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표는 “불교가 급속히 바뀌었다. 사회활동도 활발해지고 발원금도 높아졌다.”며 관심을 표했다. 한명우 기자

강원교재 ‘도서·선요’ 연내보급

불학연구소, 서장 등 나머지는 내년에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강원에서 쓰이는 교재에 대한 사기(私記) 편찬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사기는 일종의 주석서로, 조선시대 강백들이 경론(經論)에 관한 여러 학설을 모으고 자기의 견해

를 덧붙여 편찬한 책. 조선시대 불교사상사를 연구하는 데 필수 자료지만 아직 내용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현재 사집과(四集科, 강원 2년 차 교재인 <도서>와 <선요>에 대한 탈초(초서를 정서로 바로잡는

것)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자료집 형태로 발간해 강원과 도서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서장> 등 나머지 교재는 교육원의 강원 통일 교재 편찬과 맞물려 내년부터 진행된다. 권형진 기자

새 위원 법공·도문스님

2기 행사교육원 운영위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18일 제2기 행사교육원 운영위원회(위원장 교육원장 당영진) 첫 회의를 열고 중앙총회 교육원과 의원인 법공·도문 스님을 새로 운영위원회에 임명했다. 봉녕사 승가대학 학감인 혜정 스님은 문화부장 탁연 스님을 대신해 운영위원회에 들어왔다. 행사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다. 권형진 기자



북한산관통노선 폐기를 촉구하는 조계종 교구본말사 릴레이 단식정진이 14일부터 조계사시당에서 열리고 있다.

건교부, 객관·공정성 포기했다?

‘홈피’에 ‘북한산도로’ 홍보... 시공사 대변한 인상

건설교통부가 홈페이지에 북한산 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홍보물을 올려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부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10일 홈페이지 알림마당 코너에 ‘서울외곽순환(완산~퇴계원) 고속도로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홍보물을 올렸다. 홍보물에서 ‘수도권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키우는 환상형 도로망,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도권 동

서남부를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교부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항의를 받고 홍보물을 삭제했다. 한편 14일부터 조계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북한산 관통노선 폐기와 노무현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말사 릴레이 단식정진이 시작됐다.

16일 열린 부산 경남 지역 조계종 본말사 주지회의에서도 백지화를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만평 심민섭

점유자들의 목적이 불교문화 상품화시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유승삼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평: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월간역학 명당탐지기 관통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관통자로 당신이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통자란? 심통척이라고도 불리며, 이미 수천년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어오던 기구입니다.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진산실업(주)에서 완벽하게 재현하여 성공하여 국내에 공급함은 물론 해외에 시험 수출하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납골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관통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자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까지 잡을 수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지리사 등 4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관통자는?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진산실업(주)에서만 생산 공급합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랜동안 번성해오신 모든 사찰들의 대웅전 중앙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대교당 등 종교단체의 건물 중앙, 세종대왕릉, 남연군 묘와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중의 묘, 일본 동경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등의 문화재, 중국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의 능, 대만 타이베이 중정기념당(장개성 동상) 등 세계적인 유적과 시설물에서는 틀림없이 관통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흥남 예산에서 교육정을 책임하신 김모선생께서 관통자가 작동되는 지점에 은행나무 묘목을 이식하였는데, 수령 2년생인 나무들에서 호두알 굵기의 은행 열매가 50~70개 개씩 열렸답니다. 김선생께서는 이것을 보고 명당의 지기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원래 관통자는 88만원 입니다만, 2003년 7월로 월간역학 창간 13주년을 맞아 130분께만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관통자(68만원)+월간역학 1년분 (105,600)=985,600원을 80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 구입방법: 수협 227-01-002756, 예금주: 진산실업(주) 80만원 입금하신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8~24개월 할부가능. 기업체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구입 후 관통을 원하시면 3개월 이내 언제든지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 월간역학 1년분 구독료는 105,600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원으로 할인 + 수택지침서 1세트 무료 증정.

장간 13주년 기념 사은행사 월간역학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리드 101호 www.kbs.cc

월간역학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지역·종교·사우·문화·과학·유·물·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학 전문지로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월간역학에서는 2002년 4월부터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과 인터넷 중명상·역학·학원인 월간역학 원격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원을 졸업한 분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하며 가입시 월간역학을 통해 책과 홍보에 드립니다.

인터넷 중명상 강의(www.kbs.cc)를 들는 분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7만원)

역학 무료 공개강좌

사주명리학·육효·수상

7월26일(토) 오후 2시부터

[초·중·고급 실전문: 사주를 배우고도 감명여 자신없는 분을 위해 확실한 교육] 동대문운동장역10번 출구 왕십리방향 30m

월간역학교육원